

2022-08-22 (2022-31호)

8월 22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변동성 고삐 풀린 환율... 당국 대응 촉각

서울, 8월2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연준발 긴축 경계와 중국 경제 둔화 우려 확산 여부 따라 상승 변동성에 취약한 가운데 1,350원도 가시권에 두는 등 상승 압력에 놓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10-1,350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강도 긴축 완화와 미국 경기의 완만한 둔화 가능성에 잠시 들떴던 위험자산과 통화들은 경기 둔화를 감수한 물가 통제 의지를 강하게 피력 중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또한, 주요 유럽 국가들의 물가 지표 집계 결과 물가 정점 기대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시장 심리는 위축되는 모습이다. 7월 독일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7.2%, 전월비 5.3% 각각 급등해 194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인 글로벌 달러는 방향을 급선회해 강하게 진격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역외 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1,335원 선까지 치솟아 그간 지켜진 박스권 상단을 너무 쉽게 뚫어냈다. 달러지수가 이전 고점인 109선에 도달하기도 전에 달러/원은 전 고점을 먼저 상향 돌파한 만큼 당분간 달러/원 단기 상단 인식은 쉽게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의 경우 연준 긴축 경계와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까지 더해진다면 약세 변동성에 한층 취약해질 수 있다.

오는 22일 중국이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이 주 초 원화 움직임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달 20일자 한국 수출입 현황(잠정치)도 발표된다. 수출 경기를 비롯해 무역수지 적자 확대 여부 따라 국내 금융시장은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다.

오는 25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는 25bp 기준금리 인상이 폭넓게 예상되고 있다. 원화는 이러한 금리 결정보다는 향후 통화정책 스탠스를 비롯해 환율 상승 폭이나 수준에 대한 한은 총재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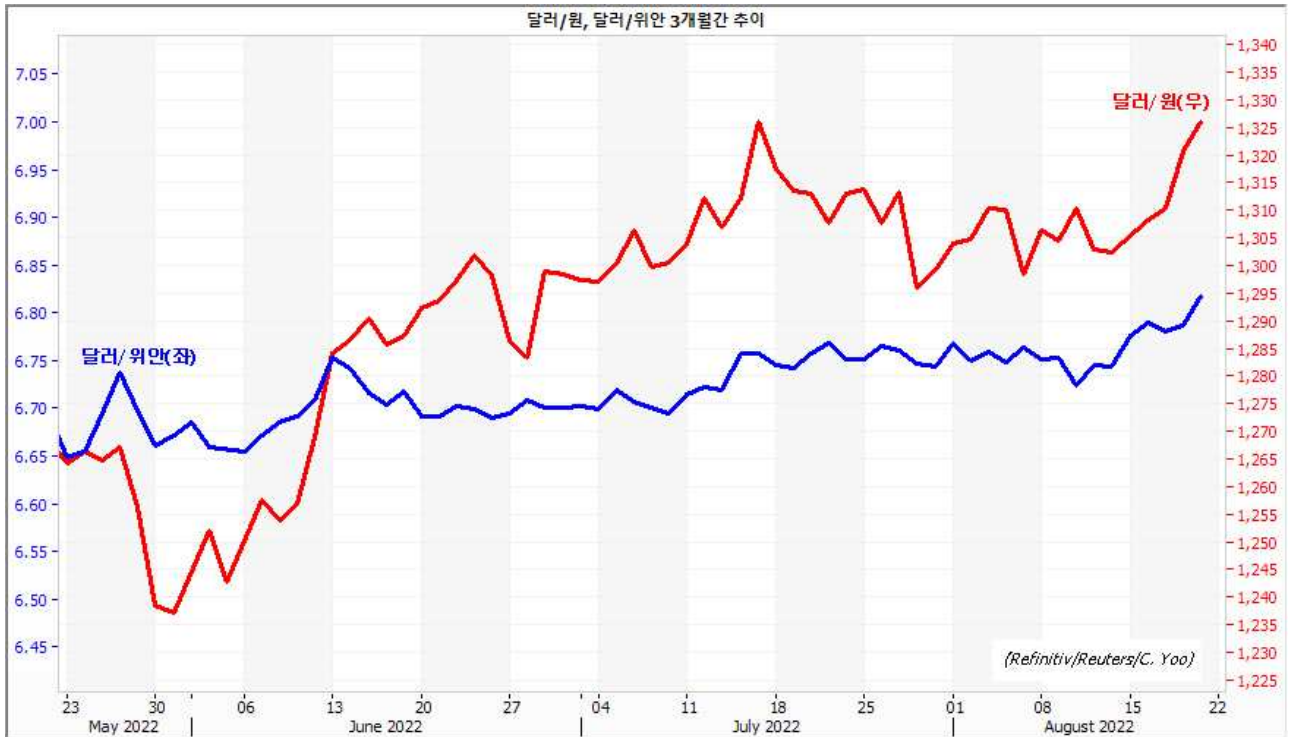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지난 주말 원화가 다른 통화 움직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달러/원 환율이 1,300원대에서 급등세를 재개한 상황에서 외환당국의 시장 대응은 시장 참가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환율의 일방적인 고공 행진이 진행된다면 수급 불균형은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이에 당국의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주 후반 연준 통화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잭슨 홀 미팅과 핵심 물가 지표인 미국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8월22일(월)

- 관세청: 8.1~20일 수출입 현황
- 기획재정부: 새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10:00)
- 통계청: 2022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12:00)
- 한국은행: 2022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15:00)

8월23일(화)

- 한국은행: 2022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06:00)
- 한국은행: 2022년 2/4분기 가계신용(잠정) (12: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회의 개최 (17:30)

8월24일(수)

- 한국은행: 2022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통계청: 2021년 출생통계 (12:00)
- 통계청: 2022년 6월 인구동향·7월 국내인구이동 (12:00)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 (14:00)

8월25일(목)

- 한국은행: 2022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금융감독원: '22.7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06:00)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09:00)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11:10)
- 금융위원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부담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12:00)
- 통계청: 2022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12:00)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2.8월) (13:30)
- 기획재정부: '22년 9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8월 발행 실적 (17:00)
- 기획재정부: 부총리·1차관·2차관 국민의힘 연찬회 (17:10)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미국 캔자스시티연준 주최 경제정책 심포지엄 참석 (배포시)

8월26일(금)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단위	이전수치
8월22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년	8월		Percent	3.70%
8월22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년	8월		Percent	4.45%
8월22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7월		Index	-0.19
8월23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8월		Index (diffusion)	52.1
8월23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잠정치	8월		Index (diffusion)	50.3
8월23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8월	49.0	Index (diffusion)	49.8
8월23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8월	50.5	Index (diffusion)	51.2
8월23일	21:00	미국	건축허가 수정치	7월		Number of	1.674M
8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8월		Index (diffusion)	52.2
8월2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8월		Index (diffusion)	47.3
8월23일	23: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8월	-28.0	Net balance	-27.0
8월23일	23:00	미국	신규주택 판매	7월	0.584M	Number of	0.590M
8월24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8월19일 주간		Index	273.3
8월24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7월	0.6%	Percent	2.0%
8월24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지수	7월		Index	91.0
8월25일	21:30	미국	기업이익 잠정치	2분기		Percent	-4.9%
8월25일	21:30	미국	GDP 수정치	2분기	-0.9%	Percent	-0.9%
8월25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8월15일 주간		Person	250k
8월26일	00:00	미국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8월		Index	7
8월26일	08:30	일본	도쿄 CPI	8월		Percent	2.5%
8월26일	17:00	유로존	총 유동성(M3) 증가율	7월	5.6%	Percent	5.7%
8월26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7월		Percent	4.6%
8월26일	21:30	미국	개인소득 MM	7월	0.6%	Percent	0.6%
8월26일	21:30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MM	7월	0.3%	Percent	0.6%
8월26일	21:30	미국	도매재고 잠정치	7월		Percent	1.8%
8월26일	21:30	미국	소매재고 잠정치	7월		Percent	1.5%
8월26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	8월	55.1	Index	55.1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8월23일(화)

-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8월 서비스업 경기전망 서베이 발표 (오후 9시30분)
-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와튼 미네소타 동문회 Q&A 세션 참석 (24일 오전 8시)

8월25일(목)

- ⊙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개최 (27일까지)

8월26일(금)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 (오후 11시)

▶ 금주 세계 5대 이슈

⊙ 잭슨 홀 회의

투자자들은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폭과 경제 방향 등에 대해 오는 25~27일 열릴 잭슨 홀 회의에서 단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요 주가지수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이나 연준의 도비시한 스탠스 전환에 대한 전망이 시기상조라는 연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상승세를 이어 왔다.

일부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잭슨 홀 연설에서 도비시한 스탠스 전환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꺾을 수 있다고 말한다. 투자자들에게 연준의 9월 회의 이전에 물가 및 고용 지표가 한 번 더 나올 것임을 상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양적 긴축으로 알려진 9조달러 규모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 추가적인 세부 내용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 주요국 PMI

유럽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3일 나올 S&P글로벌 8월 유로존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도 주목된다.

유로존의 7월 종합 PMI는 17개월 만의 최저치인 49.9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생활비 급등에 민간 소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ZEW 8월 투자자 심리지수가 -55.3으로 하락한 바 있다.

같은 날 미국과 영국 8월 PMI도 발표될 예정이다.

⊙ 중국 대출우대금리 추가 인하?

중국인민은행은 22일 1년물과 5년물 대출우대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로이터 사전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1년물 금리가 10bp, 5년물 금리는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6일 인민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1년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85%에서 2.75%로, 7일물 역레포 금리를 2.1%에서 2.0%로 각각 10bp씩 인하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 경제 둔화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위안 가치를 2개월 만의 최저치로 끌어내린 바 있다.

인민은행은 은행들에게 대출을 촉구하고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경제 우려가 여전하고 소비자들은 부동산 가격 급락을 경계하는 가운데 대출 수요는 별로 없는 형편이다.

⊙ 美 PCE 물가지수 등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오는 26일 발표된다.

지난 6월 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8%로 1982년 1월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 건전성에 대한 단서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7월 신규주택 판매, 24일에는 7월 내구재 주문이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 만 6개월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로 만 6개월을 맞는다.

이번 전쟁은 인도주의적 비극이며 세계를 새로운 냉전으로 밀어 넣기도 했지만 유럽 가스 위기 등을 초래하며 전 세계에 경기침체 우려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다만 곡물과 원유 시장은 전쟁 초기 타격을 비교적 빠르게 회복한 모습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규모 공급국인 소맥과 옥수수 가격 급등세는 빠르게 진정됐고,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LCOc1 가격도 전쟁 시작 당시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락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강달러·약위한에 13년 4개월 최고치 상승... 네고에 속도는 조절

8월1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은 19일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13년 4개월 만의 최고치로 상승했다.

전일비 5.3원 높은 1,326.0원에 개장한 환율은 5.2원 오른 1,325.9원에 거래를 마쳤다.

7월 연방준비제도(연준) 회의 의사록 공개 이후 달러 강세가 재점화됐다. 간밤 달러지수는 107선으로 올라 1개월 만의 최고치로 전진했다.

영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이 전년비 10.1% 급등해 40여 년 만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전망이 되살아나자 글로벌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 압력을 확대했다.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보다 적었고, 8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지수가 7월 -12.3에서 6.2로 크게 개선되는 등 지표 호조도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주요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동시에 고강도 통화긴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경제 둔화 우려 속 오는 22일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전망까지 부상하자 위안화는 약세 압력을 키웠다. 이날 역외 달러/위안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6.82위안대로 올랐다.

달러 강세와 위안 약세가 맞물린 여건 속에서 달러/원 환율은 매수 심리가 확대됐다. 이에 환율은 장중 한때 1,328.8원까지 올라 2009년 4월 2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진했다.

다만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하자 당국 개입 경계감 속 네고 등 대기 매물 소화에 환율 상승 속도가 조절됐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당국보다는 네고가 소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 여건 등에 달러/원 저점 매수세에 환율의 되돌림 시도는 제한됐다.

다른 은행 외환딜러는 "롱 심리로 형성된 포지션과 쌓인 네고가 일부 해소됐지만, 매수세도 여전히 강했다. 강달러에 더해진 위안 약세로 원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도 열려있다"면서 "환율이 마땅히 하락할 재료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술적으로 전고점까지 뚫려 환율 상단이 열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환율 관련 질문에 "환율은 지금 달러가 워낙 강세로 가고있고, 다른 통화 비슷한 흐름으로...시장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약 0.6%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900억원어치를 팔아치워 4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

• (정리) 연준 관계자들, “금리 인상 필요” 한목소리

8월19일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 관계자 18일(현지시간) 주요 발언 정리

-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9월 회의서 금리 75bp 인상 선호..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다다랐다고 아직 말할 수 없어,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연말까지 3.75-4%로 높이는 것이 중요. 시장의 금리 인하 추측은 시기상조. - WSJ
-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9월 50bp 또는 75bp 인상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아..향후 금리 인상의 속도와 최종 수준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것이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음을 "완전히 확신할 때까지" 긴축을 중단하지 않을 것.
-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을 가능한 빨리 낮춰야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9월 금리 50bp나 75bp 인상은 단기 차입금리를 올해 말 3%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내년에는 그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기에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 올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한 뒤 내년에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 CNN인터내셔널

• 연준 회의록, 추가 금리 인상 시사... 속도는 둔화 가능

워싱턴, 8월18일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 관료들은 지난달 말 정책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으며 물가 역제를 위해 경제가 둔화될 정도까지 긴축을 이어갈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회의록에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7월26~27일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정책결정권자들은 금리를 지나치게 올리거나 경제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위험을 좀더 분명하게 인지하기 시작했음에도 인플레이션 역제를 위해 필요한만큼 높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록은 그러나 향후 수개월 연준의 중요한 논점은 금리 인상 속도 둔화 시기와 금리가 필요 이상으로 인상되었음을 아는 방법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회의록에 따르면 다수 참석자는 연준이 "물가 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통화정책을 긴축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이 오는 9월20~21일 정책회의에서 얼마큼 금리를 인상할지 이번 회의록에 분명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시장은 회의록 발표 후 9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 잡았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회의록 발표 후 9월 75bp 인상 가능성은 40%로 이날 초반 52%보다 떨어졌고, 50bp 인상 가능성은 60%를 나타냈다.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8월19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325.9	-1.8%	-10.3%	-8.6%	유로	1.0036	-2.2%	-11.7%	-6.9%
100엔 대비	975.4	0.0%	5.9%	+1.8%	엔	136.95	-2.5%	-16.0%	-10.3%
유로 대비	1,340.6	-0.3%	0.8%	-1.9%	위안	6.8170	-1.1%	-6.8%	+2.7%
위안 대비	195.95	-1.4%	-4.5%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3,706.74	-0.2%	-7.2%	+18.7%
코스피	2,492.69	-1.4%	-16.3%	+3.6%	나스닥	12,705.22	-2.6%	-18.8%	+21.4%
코스닥	814.17	-2.1%	-21.3%	+6.8%	S&P500	4,228.48	-1.2%	-11.3%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23.55	-1.4%	-16.9%	-4.9%
국고채 3Y	3.197%	1.6bp	139.9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276%	3.7bp	126.5bp	+67.6bp	미국채 2Y	3.240%	-1.0bp	251.0bp	+61.0bp
국고채10Y	3.310%	2.8bp	106.0bp	+53.7bp	미국채 10Y	2.970%	13.0bp	146.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89.91	-2.1%	19.2%	+55.8%	한국 5Y	35.5bp	-1.4bp	13.5bp	-0.7bp
금(현물)	1,748.11	-3.0%	-4.4%	-3.6%	일본 5Y	22.3bp	-1.1bp	4.7bp	+2.1bp
TR상품지수	3,503.38	-3.8%	4.9%	+24.6%	중국 5Y	72.7bp	-1.5bp	31.5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